국어

1. 다음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은?

5,054,782,800

- ① 오 십억 오천사백칠 십팔만 이천팔 백
- ② 오십 억 오천사 백 칠십팔 만 이천팔 백
- ③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
- ④ 오십 억 오천사 백칠십팔만 이천 팔백

2. 다음 <보기>의 외래어 표기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2018년 해양경찰청 지휘부 ㉠워크샵

- 목적 : 해양경찰 지휘부의 ㉡리더쉽 신장
- 대상 : 총경급 이상
-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15:00-20:00
- 장소 : 4층 대회의실
- 식사 : 석식 제공(㉢부패)
- 내용 : 주제 강연, 모듬 토론, ㉣레크리에이션

-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은?

영미는 커서 결국 해양경찰이 되었다.

- ① 주어 ② 보어
- ③ 관형어 ④ 서술어

4.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그는 길섶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다.
- 길섶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 ③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몽만다.
- 몽만다 :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 한다
- ④ 그는 책장을 데면데면 넘긴다.
- 데면데면 :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5. 다음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 : 使喉 ② ㉡ : 間涉
- ③ ㉢ : 缺陷 ④ ㉣ : 剔抉

6. 공문서의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정 기일 내에
→ 정한 날짜 안에
- ② 익년도
→ 다음 해
- ③ 재입찰에 부하고
→ 재입찰에 붙이고
- ④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게을리하거나

7.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의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 ㉡ 방관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점차 냉혹하고 흉악해질 것이다.
- ㉢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 ㉣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법의 적용이다.
- ㉤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8. 다음 글을 읽고 나는 대화의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좋은 얼굴을 가져 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10년쯤 성의껏 애쓰면 얼굴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① A :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 ② B :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처럼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어.
- ③ C : 이상의 실현을 위해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구나.
- ④ D : ‘낙숫물이 댛돌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좋은 얼굴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쓰면 얼굴은 달라질 거야.

9. 다음 대화에서 ㉠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방문객’의 대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해군의 규모를 협의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찾아왔다. “저는 해군 관계 일로 대통령을 뵈러 왔습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0분간 계속 이야기를 했다. 방문객은 가끔씩 그 말을 받아서 “그렇군요.”, “아, 네.” 등으로 응수할 뿐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문객이 돌아간 다음, 루스벨트는 몹시 기분 좋은 어투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저 사람처럼 훌륭한 능변가는 처음이야.”

- ①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 주제를 설정한다.
- ②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대화에 참여한다.
- ③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한다.
- ④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한다.

10.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쓰기 계획>

- 현상 :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 의식 :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임.
- 서술 방향 : (_____ ㉠ _____)

- ① 직원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 ②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 ③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 ④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화가 난 오빠는 팬시리 샌드백을 투덕거렸다.
- ② 에게, 이까짓 것을 어디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 ③ 아들이 어느새 잼잼과 곤지곤지를 하기 시작했다.
- ④ 갑자기 찾아온 그는 짐도 없이 단출한 차림이었다.

15. 다음 글을 읽고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짝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간헐네

- 기형도, 「빈집」 -

이자(李子, 이규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 선후가 있거늘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

- 이규보, 「주뢰설」

- ① ㉠ :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화자를 비유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 공허하고 폐쇄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뇌물로 부패한 현실의 세태를 주제 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양식으로 유추에 의한 사고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다.

16.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나니 가니 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니 닛고.
 어느 7 술 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브러딜 닛기, 7 ㄷ
 흥디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디 룬더.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닳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 보 기 >

신어(新語) 중에는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고시텔’은 기존에 쓰이던 단어 ‘고시’에 영어 단어 ‘hotel’의 ‘tel’이 덧붙여 생긴 말이다. 이때 ‘tel’은 본래는 접미사가 아니던 것이 신어에서는 마치 접미사처럼 쓰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① “어느 7 술 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브러딜 닛곤”은 누이의 요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 ②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③ 마지막 두 행에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 ④ 향가의 10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① 소개팅
- ② 클릭질
- ③ 전시룸
- ④ 투잡죽

19.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나는 쌀뜻물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있었다.
- ② 그는 밥솥에 넣어붙은 누른밥으로 요리를 했다.
- ③ 나는 소쿠리에 음식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 ④ 온종일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20. 다음 글의 당신과 <보기>의 화자 간의 공통점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이봐…… 나, 배고픈디.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디. 당신은 헛간에 놓여 있는 빈 평상을 향해 웅얼거렸다. 고추 꼭지를 따거나 깻잎을 개거나 배추를 간하다가도 당신이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저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 곁으로 와서는 산에 땅두릅이 났길래 좀 캐 왔는디 두릅전 부쳐 볼까? 자실라요? 하던 아내. 그때는 왜 그것이 평화롭고 복된 일이란 걸 몰랐을까. 아내한테 미역국 한번 끓여줘 본 적 없으면서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은 어찌 그리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 언젠가 읍내에 나갔다 온 아내가 거, 시장통의 당신 잘 가는 정육점 있잖우. 오늘 고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아낙이 자꾸 나를 불러서 들어갔더마는 미역국을 먹고 가라길래 웬 미역국이냐 했더니 오늘이 생일인디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합디다, 했다. 당신이 그저 듣고 있으니 맛이 있었던 건 아니요! 그란디 첨으로 정육점 아낙이 부럽던디요, 그랬다. 당신의 메마른 눈이 껌벅거렸다. 어디에 있소……. 아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미역국이 아니라 전도 부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벌주는가……. 당신의 메마른 눈에 물기가 어렸다.

당신은 이 집을 내키는 대로 떠났다가 돌아오면서도 아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중에서

< 보기 >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① 지금 곁에 없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평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③ 눈물의 심상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대상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다.